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속도낸다

등록 2025.04.08 10:51:00



농촌을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시작된다.

농어촌공사가 중앙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홍보 이미지. (사진=농어촌공사 블로그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광역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농촌 지역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심화 연구' 용역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남권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계획수립 지침에 제시된 공통지표 5개, 자율지표 16개 등 성과지표 21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과지표 개발 연구 용역은 한국농업경제학회 소속의 강혜정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추진 한다.

용역 착수 회의에서 전남본부 실무진과 연구진들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전남 시·군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단계별 검증을 통해 활용성이 높은 기본계획 139개를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성과지표는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본 연구의 성과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그리는 전남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공사 전남,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 용역 착수

김춘수 기자(=전남) | 2025.04.09. 17:45:40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를 위한 착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사는 계획수립 지침 상 제시된 21개 성과지표(공통지표5개, 자율지표 16개)를 체계화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단계별 검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139개 시·군에 그 활용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은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홍승지) 소속 강혜정 교수(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추진한다.



▲전남지역본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를 위한 착수회를 개최했다©전남본부

이번 착수회에서는 전라남도 지정 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실무진과 용역 연구진들이 성과지표에 대한 과업 수행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성과지표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본 연구의 성과가 당장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에서 나아가 향후 10년의 농촌공간을 다시 그리는데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심화연구 착수회 개최

2025년 04월 08일 (화) 오전 10시 59분 36초
한봉수기자 onda88@inews24.com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 관련'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 착수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관련 제시된 21개 성과지표'를 체계화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단계별 검증을 통해,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군'의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성공적인 성과지표 개발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이번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은 한국농업경제학회 소속 강혜정 교수(전남대 농업경제학과)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진행한다.
착수회에서 '전라남도 지정, 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실무팀과 용역 연구원들이 성과지표에 대한 과업 수행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식 전남본부장은 “성과지표는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기능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연구의 성과가 향후 10년의 농촌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정표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주=한봉수 기자 onda88@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본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기사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심화연구 용역 착수회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2:54 |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2:54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를 위한 착수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사는 계획수립 지침 상 제시된 21개 성과지표(공통지표5개, 자율지표 16개)를 체계화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단계별 검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139개 시·군에 그 활용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심화연구 용역 착수회.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2025.04.08 ej7648@newspim.com

해당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은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홍승지) 소속 강혜정 교수(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추진한다.

이날 착수회에서는 전라남도 지정 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실무진과 용역 연구진들이 성과지표에 대한 과업 수행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를 진행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성과지표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본 연구의 성과가 당장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에서 나아가 향후 10년의 농촌공간을 다시 그리는데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대한다."고 전했다.

ej764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성과지표 개발

이정진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4-08 13:14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연구진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를 위한 착수회를 개최했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용역을 통해 공사는 계획수립 지침 상 제시된 21개 성과지표(공통지표 5개, 자율지표 16개)를 체계화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단계별 검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139개 시·군에 그 활용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은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홍승지) 소속 강혜정 교수(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추진한다.

이날 착수회에서는 전라남도 지정 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실무진과 용역 연구진들이 성과지표에 대한 과업 수행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성과지표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연구의 성과가 당장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에서 나아가 향후 10년의 농촌공간을 다시 그리는데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 용역 착수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4.08 09:22



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연구진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지난 3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를 위한 착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사는 계획수립 지침 상 제시된 21개 성과지표(공통지표5개, 자율지표 16개)를 체계화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단계별 검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139개 시·군에 그 활용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은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홍승지) 소속 강혜정 교수(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추진한다.

이날 착수회에서는 전라남도 지정 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실무진과 용역 연구진들이 성과지표에 대한 과업 수행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성과지표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본 연구의 성과가 당장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에서 나아가 향후 10년의 농촌공간을 다시 그리는데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

농어촌공 전남, 농촌공간 재구조화 '앞장'. ..착수회 개최

✎ 이창식 기자 | ⓒ 승인 2025.04.08 13:23

재생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 용역 착수회 개최



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연구진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3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를 위한 착수회를 개최했다.

8일 본부에 따르면 이번 용역을 통해 공사는 계획수립 지침상 제시된 21개 성과지표(공통지표 5개, 자율지표 16개)를 체계화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단계별 검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139개 시·군에 그 활용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은 한국농업경제학회 소속 강혜정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추진한다.

이날 착수회에서는 전라남도 지정 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 실무진과 용역 연구진들이 성과지표에 대한 과업 수행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성과지표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본 연구의 성과가 당장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에서 나아가 향후 10년의 농촌공간을 다시 그리는데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 용역 착수회 개최

기사입력시간 : 2025/04/09 [08:03:00]

김대혁



▲ 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김재식 본부장이 는 지난 3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를 위한 착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지난 3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성과지표 개발 심화연구’를 위한 착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사는 계획수립 지침 상 제시된 21개 성과지표(공통지표5개, 자율지표 16개)를 체계화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단계별 검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139개 시·군에 그 활용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은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홍승지) 소속강혜정 교수(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추진한다.

이날 착수회에서는 전라남도 지정 전남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실무진과 용역 연구진들이 성과지표에 대한 과업 수행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식 본부장은 “성과지표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본연구의성과가 당장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에서 나아가 향후 10년의 농촌공간을 다시 그리는데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혁 기자 HDK0560@HANMAIL.NET